



얼마전 미국의 서부지방을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일정에도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아리조나 주를 보고 왔으니, 강행군을 한 셈이다. 물론 어느 나라와는 달리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였거나 거주하고 있으니, 여행한 것을 말할 처지도 못되지만,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 구경 한번 한셈치고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 소감을 말해 보려고 한다. 원래 서울에서 나서 자란 사람보다 서울을 한번 구경한 시골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 더 잘 아는 법 아

도 아니었다. 첫째는 미국인들의 질서의식이었고, 둘째는 어디가든 깨끗한 화장실이었고, 셋째는 어디서든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실 수 있는 정수된 수도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마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사거리로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사거리 임에도 교통 신호등이 없고 단지 '양보'라는 글씨만 아스팔트에 쓰여 있어 은근히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얼마전 모 방송에서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시민에게 대형 냉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을 서서 자동차들의 움직임에 주시하였다. 그리고 나는 단 한대도 양보라는 글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모두들 정지선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모습에는 여유가 넘쳤다. 먼지가려고 아우성 치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었다고 욕하고, 욕한다고 다시 욕설을 퍼붓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통문화는 내게 준 첫번째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와 같은 충격은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물론 사막의 한 가운데 위치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지만, 그 보다는 화장실에서의 줄서기 문화가 더욱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화장실에서는 사람이 많을 경우 대개 일을 보는 사람의 뒤에 서

미국 여행

닌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넓다고 말하지만, 나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을 본 탓인지 '넓다'는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 등지를 볼 때는 물론이고, 드넓은 오렌지 농장을 지날 때 오렌지를 따고 있는 수 많은 불법채류자들, 그리고 내일 운명을 달리하게 될 엄청난 소떼들을 보면서도 풍부한 자원의 나라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로 미국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활한 땅이나 후버댐도 아니고,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도 아니고, 웅대한 그랜드캐년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서 차례를 기다린다. 따라서 옆의 사람보다 훨씬 먼저 왔더라도 힘이 없는 할아버지의 뒤에 서는 경우처럼 줄을 잘못서게 되면 본의아니게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식이다. 줄서기에도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러운 것은 질서의식만이 아니었다. 처음 미국을 방문해서 머리 속을 오락가락 한 것은 유럽이나 러시아를 여행할 때처럼 생수를 몇 병 사서 들고 다녀야 할 것인지였다. 하지만 물에 관한 걱정은 기우였다. 미국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어렸을 적 운동을 끝내고 나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수도물을 빨아 마시듯 그렇게 마시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에 어두운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 보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수단으로 슬롯머신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 자식이라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손주라고 무릎 위에 걸터 앉아 재롱을 부리지도 않는 타인들과 같으니, 혼자 유희를 즐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이들이 슬롯머신을 하다가 큰 것을 하나 터트

리는 경우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으리으리한 호텔 옆에는 응급자동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그랜드캐년의 인디언들의 삶의 모습은 미국이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되새기게 해준다.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이면에는 먼지만 폴폴 날리는 허허벌판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주름진 얼굴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 인디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주름살과 슬픈 사연조차 관광자원이 되버렸지만 말이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돈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했다.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든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으니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이러한 사정은 해외여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에 나가 보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태도 보다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라고 부추키다가, 이젠 해외여행을 자체하라고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놓친 처사이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을 주요 관광국으로 찾지 않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즐겨 찾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한국적인 것을 볼 것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비원 등을 보여주고 나서, 좀 더 시간을 내어 경주 등을 보여 주고 나면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는가? 전쟁을 많이 겪어 원래의 모습을 잃은 것이 많은 탓이겠지만, 기왕이면 한국적인 볼거리를 많이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문화적 차이가 문화적 차별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공연히 나와는 차이가 있는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을 보는 시각과 방글라데시인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두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그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다시 우리에게로 향한다.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자그마한 땅에서 폐쇄체하게 살면서 즐지에 부자가 되어 거들먹 거리는 인종으로 말한다든 그 얼마나 우울한 평가인가! ☘